

# 페르시아 아케메네스(Achaemenes)왕조 비수툼(Bisotun) 부조에 묘사된 복식 연구

장영수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연구교수

## A Study on Costume Styles on the Bisotun Relief of the Achaemenid Persian Empire

Youngsoo Yi-Chang

Research Prof., The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Hanyang University

(2007. 12. 13. 접수; 2008. 2. 19. 채택)

###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Bisotun relief of the Achaemenid Dynasty in ancient Persia. The Bisotun relief consists of the relief and the inscriptions which was completed through 7 phases. The inscriptions describe how King Darius suppressed the rebels in Elamite, Babilian and ancient Persian languages.

This relief is a work during the early Darius period and it describes using the traditions of Mesopotamia in terms of the theme and structure. In terms of structural features, it follows the typical features of the Assyrian arts, the beard and the shape of hair style.

On the other hand, the smooth curves used to describe the creases of the clothes and the supple body was not a typical oriental feature. It was known to be because of Greek influence from their communications. It also showed the dressings of the clans that made up the Achaemenid Dynasty through the 9 rebellions wearing clothes unique to their clan and the inscription that was inscribed with the name of the clans. The clothing and ornaments they were wearing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clans that wore one-piece style Persian dress and clans that wore tunic jackets and trousers which is a typical dressing style of the nomads.

**Key Words:** Achaemenid clothing style(아케메네스왕조 복식형태), One-piece style(일자형의 복식형태), Persiandress(페르시아드레스), Nomads style(유목민 복식형태), Tunic jackets and trousers(튜닉형 저고리와 바지)

---

Corresponding author ; Youngsoo Yi-Chang

Tel. +82-31+400-5021, Fax. +82-2-760-4484

E-mail : chang8489@hanmail.net

## I. 서론

기원전 521년 다리우스(Darius) 왕은 페르시아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Achaemenes) 왕조의 강력한 왕으로 역사에 등장한다. 다리우스 왕은 자기의 강력한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 앞에 반란군을 제압한 왕의 승리를 선포하고 반란의 참혹한 결과를 제시하여 다시는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가는 대상로의 중심지인 비수툰(Bisutum)<sup>1)</sup>의 바위산에 부조로 기념물을 새겨 놓았다. 여기에는 다리우스왕이 반란군들을 진압한 과정을 엘람어, 바빌론어, 고대 페르시아어로 설명한 비문과 함께 9명의 반란종족의 대표들을 밧줄로 묶어 연결해 놓은 형상들을 부조로 새겨 놓아 비수툰 부조는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묘사한<sup>2)</sup> 작품이 되었다.

비수툰 부조는 아케메네스 왕조 초기의 작품으로 주제나 표현기법에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에 기초하여 자기들의 양식을 표현하려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비수툰 이후의 작품인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궁전 아파다나(Apadana) 계단 조공도나 나그웨 로스탐(Nasq-i-Rustam)에 있는 왕의 무덤 부조 등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비수툰 부조는 아케메네스 왕조 초기 이 왕조에 영향을 준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이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페르시아의 특성으로 발전하는지 그 중간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써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부조에는 반란에 가담했던 종족들이 각각 자기들 고유의 복식을 착용하고 묘사되어 있고 비문에 그들의 출신이 명기되어 있어 종족들의 출신과 복식을 연구할 수 있는 사실적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비수툰 부조 형상의 분석을 통하여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가 초기에 왕조의 기틀을 잡기위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받아들여 어떻게 자기들 식으로 변형시켜나갔나를 살펴봄으로써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요,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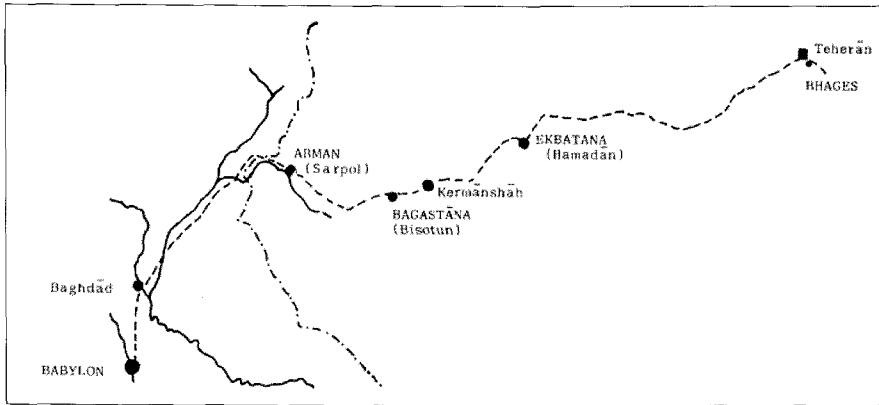
다른 목적은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를 형성시켰던 여러 종족들의 복식형태를 사실적인 역사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여러 종족의 복식의 타이포로지(Typologie)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형성된 페르시아문화의 원형은 그 후 사산조 페르시아 왕조로 이어져 중앙아시아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동 서양의 문명교류사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구가 미흡하여 페르시아 문화의 원형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연구는 페르시아 문화의 원형 연구에 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복식연구를 통해 동 서양 문명교류사의 연구에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의 방법으로는 비수툰 부조의 일반적 성격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자료를 활용하여야하나 국내에서는 이 분야의 참고문헌<sup>3)</sup>을 거의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자가 독일 고고학 연구소에서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보고서와 연구서를 직접 수집 분석하여 연구의 토대를 만들었고, 지난 겨울 이 지역을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방문하여 실제로 비수툰 부조를 조사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 II. 아케메네스 왕조의 역사적 배경과 다리우스 왕의 집권

페르시아는 기원전 843년 앗시리아왕 살마나쌍르 3세(Salmanassar III: B.C. 859-824)가 쓴 한 전쟁 기록서에 파르샤(Parsa)<sup>4)</sup>라는 종족으로 처음 역사에 등장한다. 기원전 9-8세기 카스피해의 서쪽 연안, 오늘날 이란 북서쪽 아제르바이잔(Aserbeidschan)에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인들은 서쪽으로(-북서쪽으로는 우라르트(Urartaer)인, 동남쪽으로는 메디아(Media)인<sup>5)</sup>, 남서쪽으로는 앗시리아(Assyria)인) 강력한 종족에 시달리다 기원전 700년경 남쪽으로 이주하여 그 당시 엘람(Elam) 인들이 살던 곳 안잔(Anzan) 지방(페르세폴리스, Persepolis에서 서쪽으로 50km)에 도달하였다. 엘람인은 몇 천년 전부터 이곳에서 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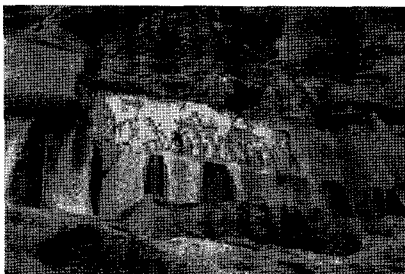


<그림1>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마단(Hamadan)으로 가는 대상으로, H. Koch, p.13 Abb.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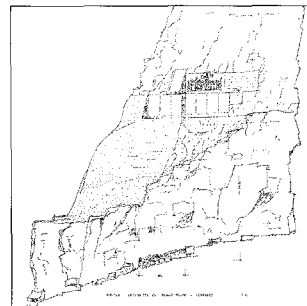
포타미아와 이웃하여 그들과 많은 문명을 교류하며 살았던 종족이었는데 기원전 8세기에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맞고 있었다. 이 불안한 정국을 이용하여 페르시아인이 이곳으로 이주하며 엘람과의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엘람국은 페르시아인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페르시아의 이주로 인해 발발했던 페르시아와 엘람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기원전 691년 앗시리아의 왕 산헤립(Sanherib)에 의해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또한 엘람의 수도 수사(Susa)에서 발견된 행정기록에 페르시아인들이 이곳에서 많은 세금을 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엘람국에서 페르시아인의 영향력을 상상해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기록에 초점을 맞춘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페르시아의 힘이 커져 페르시아 대 제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잔(Anzan)지역에 이주한 페르시아 인은 안

잔의 왕(King of Anzan) 이라고 명명한 지도자, 키루스 2세(Kyrus II, 키루스 대왕) 아래 세력을 키워 기원전 555년 메디아 국을 무너뜨리고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웠다. 기원전 545년 키루스 대왕은 소아시아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여 왕조의 영역을 넓혀갔으며, 기원전 539년에는 메소포타미아지역의 강력한 국가인 바빌론을 함락하면서 아케메네스 왕조가 대제국으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기원전 529년 아랄(Aral)해 지역 시르-다리아(Syr-Darya)강 지역에 살던 스키타이를 무찌르기 위해 원정길에 나섰던 키루스 대왕이 그곳에서 죽은 후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Kambyses II)가 왕위에 올라 이집트 정복을 시도하였다. 이집트 원정을 위해 캄비세스가 페르시아를 떠나 있는 동안 페르시아에서는 메디아의 종교 지도자, 가우마타(Gaumata)라고 이름하는 한 마기아(Magia)인이 자기가 캄비세스의 동생 브르다(Brdya, 그리스어로 스메



<그림2> 비수툰 부조가 있는 바위산, 연구자 촬영



<그림3> 비수툰 산의 스케치, H. Lushey, p.64, Abb. 1.

르디스, Smerdis)라고 자칭하며 왕권을 잡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집트에서 이 소식을 들은 캄비세스는 귀국 길에 올랐으나 기원전 522년 귀국길에서 요절하고 만다. 캄비세스를 도와 페르시아의 군인으로 이집트 원정에 참가했었고 캄비세스와 같이 귀국길에 올랐던 아케메네스의 왕족 다리우스(키루스 대왕의 조카이며 캄비세스의 사촌)는 페르시아로 돌아와 기원전 522년 반란의 주도자 가우마타를 죽이고 반란을 진압한다. 이후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전지역 총 19 지역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진압하고 기원전 521년 12월 마침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위에 오른다.<sup>8)</sup> 이로써 아케메네스 왕가는 아케메네스 왕가의 장자인 키루스 대왕의 혈통에서 키루스 대왕의 동생의 가문으로 그 보좌가 옮겨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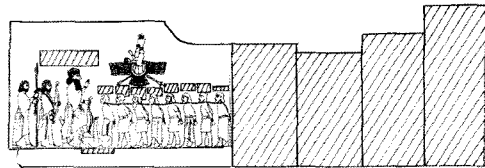
### III. 비수톤 비문과 부조의 제작과정

비수톤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자그로스(Zagros) 산맥을 거쳐 메디아(Media) 왕국의 수도인 엑크바타나(Ecbatana- 현재의 하마단, Hamadan)로 들어가는 중요한 대상로의 한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다<그림1>. 다리우스 왕은 이 기념물을 이곳에 제작함으로써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반란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편 자기가 아케메네스 왕족의 한 사람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왕위에 오른 것이 정당한 것이며 이를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 신에게 인정받았다고 선전하려는 것이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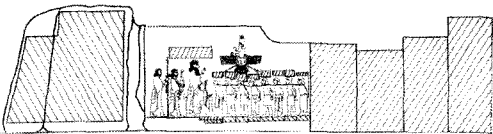
이 기념물은 비문과 부조,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조를 중심으로 양 옆과 밑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엘람어, 바빌론어, 고대페르시아어 등 세 언어로 새겨져 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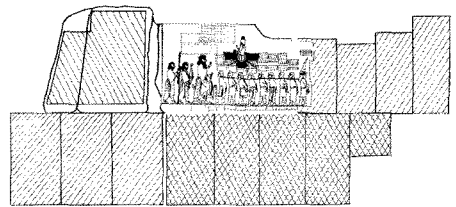
<그림4> 제 1단계 비수톤 부조, Koch, H.(1992), p.17. Abb.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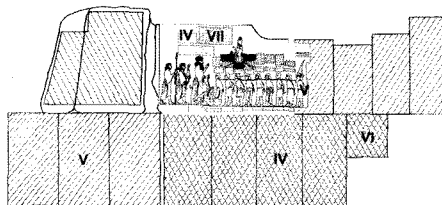
<그림5> 제 2단계 엘람어 비문, Koch, H.(1992) p.19. Abb. 8.



<그림6> 제 3단계 바빌론어 비문, Koch, H.(1992), p.19. Abb. 9.



<그림7> 제 4단계 고대 페르시아어 비문, Koch, H.(1992), p.19. Abb. 10.



<그림8> 제 5, 6, 7단계, Koch, H.(1992), p.19. Abb. 10.

리우스 왕은 여기에 이 부조를 제작하는 의도와 반란군들을 무찌른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sup>10)</sup> 부조는 지상에서 약 66m 높이<sup>11)</sup>에 묘사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약 3 × 5.5m<sup>12)</sup>이고 비문의 크기는 7.80 × 22m<sup>13)</sup>이다<그림2,3>.

일반적으로 이 기념비의 제작년도에 대해서는 다리우스 왕이 왕좌에 오르고 반란군들을 다 진압한 후인 기원전 521년 후기로 보고 있으며 이는 7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 작업하여 수 년에 걸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해석은 부조 맨 끝에 묘사된 스키타이 왕 스쿰차(Skuncha) 때문인데, 다리우스 왕은 재위 2년차(B.C. 519) 혹은 3년 차(B.C.518)에 스키타이인을 무찌르고 스키타이 왕을 비수툰 부조에 첨가했기 때문이다.<sup>14)</sup>

이 기념비가 완성된 7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는, 다리우스 왕과 두 신하, 그 맞은편에 9명의 반란군 왕들의 형상들과 다리우스 왕위에 새겨진 엘람어 비문<sup>15)</sup><그림4>이고 제 2 단계는, 부조 오른쪽에 새겨진 엘람어 비문과 모든 형상들 위에 새겨진 엘람어로 된 이름이다<그림5>. 제 3 단계는, 부조 왼쪽에 새겨진 바빌론어 비문과 형상들 밑에 새겨진 바빌론어 이름<그림6>이고 제 4 단계는, 부조 밑에 새겨진 고대 페르시아어 비문이다. 여기에는 위의 엘람어나 바빌론어에서 보다 한 조문이 더 첨가되었는데 이 첨가된 조문의 엘람어 버전이 다리우스 왕 위에 엘람어로 쓰여진 비문위에 첨가되어졌다. 이외에 다른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 페르시아어로 된 형상들의 이름이 형상들 위, 엘람어 위에 새겨졌다<그림7>. 제 5 단계는, 8명의 반란군 왕들 뒤에 스키타이왕 스쿰차(Skuncha)가 다른 반란군의 왕들 보다는 더 크게 엘람어 비문위에 묘사되어졌다. 이 때문에 땅가진 엘람어 비문은 부조 밑 고대 페르시아어 비문 앞에 첨가되었다. 제 6 단계는, 부조 밑 고대 페르시아어 비문 뒤에 고대 페르시아어로 된 조문 6개가 첨가되었고 제 7 단계는, 제 1단계에서 다리우스 왕 위에 쓰여진 엘람어 비문이 고대 페르시아어 버전으로 그 위에 쓰여졌다<그림8>.<sup>16)</sup>

영국의 로윌슨(H. C. Rawlinson)이 1835년에서 1844년까지 이 비문을 연구 해독하여 1846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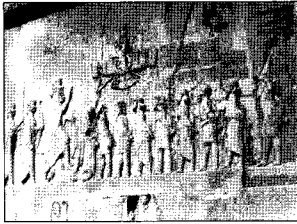
## IV. 비수툰 부조의 분석

### 1. 비수툰 부조의 일반적 특징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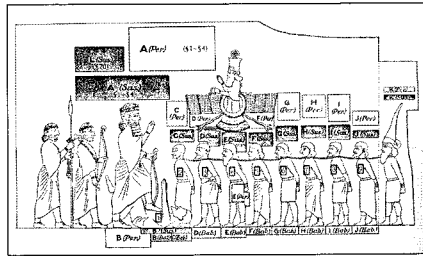
비수툰 부조는 다리우스 왕 초기 작품으로 그 형식은 다리우스 왕 후기의 작품보다 간단한 스타일이다. 일반적으로 비수툰 부조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초기의 부조 작품인 키루스 왕의 파사르가대(Pasargadae) 궁전 부조에 묘사된 고부조 형식과 형상들의 측면 묘사등의 관례를 그대로 따랐고 앗시리아 예술의 전형적 특징인 턱수염과 머리 스타일의 형태 묘사등도 그대로 모방했다.<sup>17)</sup> 또한 비수툰 부조에 나타나는 옷의 주름이나 몸을 묘사한 유연한 선들은 그 당시 그리스 예술작품에 묘사된 것과 유사성이 있어 이 부조를 제작한 예술가는 그리스 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페르시아 시대 이전 오리엔트 예술에는 몸의 유연한 선을 표현하는 스타일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접촉으로 인한 그리스의 영향<sup>18)</sup>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다리우스 왕과 왕의 두 신하가 착용한 페르시아인 드레스의 주름 형태는 기원전 520-519년 사이 그리스 아카이(Achaic)시대 예술에 표현된 주름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sup>19)</sup> 비수툰 부조에서는 형상들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구성되어져 있는데 관찰자 쪽에서 왼쪽 즉 다른 형상들의 오른쪽엔 다리우스 왕과 두 신하가, 그리고 그 맞은편, 즉 관찰자 쪽에서 오른쪽엔 반란군의 왕들이 묘사되어 있다.

오른쪽과 왼쪽의 구성은 고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고대 그림언어에서는 승리자를 항상 다른 형상들의 오른쪽에 묘사했다. 이는 고대로부터 오른쪽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한 관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sup>20)</sup> 이런 특징은 기원전 4000년으로 편년되는 고대 오리엔트 예술작품<sup>21)</sup>과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의식의 관행에서도 관찰되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페르시아의 민속적인 관례에 남아 전하고 있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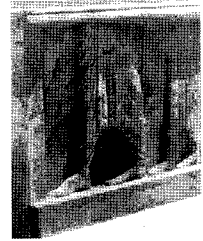
실제 사람 크기만 하게 묘사된 다리우스 왕은 활과 창을 든 두 신하를 거느리고 왼쪽에서 서서 왼발로 반란의 장본인인 가우마타를 밟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9명의 반란자들이 손이 뒤로 묶



<그림9> 비수톤 부조, Koch, H. (1992), Taf. 2



<그림10> 상세도, Robert Rollinger, p.42.



<그림11> 키루스(Kyrus) 왕의 페르시아인 드레스, 파사르가대 (Pasargadae), 연구자 촬영

인 채 목이 밧줄로 묶여 서로 연결되어 줄지어 서 있다. 이 반란자들 위에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 신이 묘사되어 있다<그림9,10>. 반란자들은 처음에는 가우마타와 8명의 반란자를 합해 9명이었으나 후에 스키타이 왕을 첨가하여 10명이 되었는데 이 아후미라는 숫자는 고대 오리엔트에서 마술의 의미를 갖는 숫자라고 전해지고 있다.23)

크기로는 다리우스 왕이 1.72m, 두 신하가 1.47m, 반란군의 왕들이 1.17m로24), 두 신하는 다리우스 왕보다 작게 또 반란군의 왕들은 두 신하보다 더 작게 묘사되어 신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앗시리아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앗시리아에서는 기원전 9, 8세기에는 왕이 신하들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묘사되었으나 기원전 7세기 어느 때인가부터 왕을 신하들보다 훨씬 크게 묘사하였다고 한다.25) 이런 기법은 아케메네스 왕조 초기 키루스 왕의 파사르가대 궁전의 부조에도 영향을 미쳐 키루스 왕과 신하를 묘사한 부조에서 왕이 확실하게 크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다리 부분만 남은 부조 조각에서 관찰 할 수 있다<그림11>.

신분에 따라 형상들의 크기가 달라지는 대상 비중의 법칙은 기원후 3-4세기경에 동아시아의 벽화 기법에서도 나타나는 기법으로 이 둘의 연결이 무관하지만은 않은 듯하나 시간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두 기법의 연결은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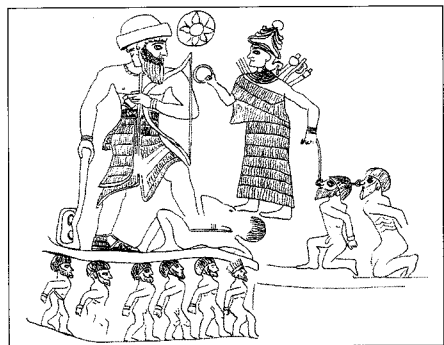
2. 메소포타미아의 영향

비수톤 부조는 그 그림의 구성과 형상의 포즈

에서 기원전 3000년으로 편년되는 메소포타미아의 작품인 사리풀(Sar-i-Pul)에 묘사되어 있는 안누바니니(Annubanini) 부조와<그림12>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26)

사리풀(Sar-i-Pul)은 비수톤에서 이라크 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비수톤과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와 메디아의 엑크바타나(Ecbatana)를 잇는 대상로에 위치해 있었다<그림1 참조>. 그래서 사리풀(Sar-i-Pul)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비수톤을 지나 갔다고 하는데27) 기원전 30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약 2500년 뒤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근접한 페르시아 지역에 다시 재현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는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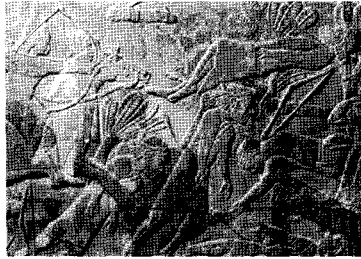
왼손에 활과 오른손에 도끼를 든 안누바니니(Annubanini) 왕은 왼쪽에 서서 땅에 누워 있는 반란자를 왼쪽 발로 밟고 있고 그 앞에는 이스타(Ishtar)여신이 한 손에는 통치권의 상징물인 링28)을 들고 안누바니니(Annubanini) 왕에게 건



<그림12> 안누바니니(Annubanini) 부조, 사리풀(Sar-i-Pul), Koch, H.(1992), p.14, Abb. 4.



<그림13> 끝이 사선으로 처리된 다리우스 왕의 페르시아안드레스와 가우마타, Koch, H. (1992), Taf. 3.



<그림14> 끝이 사선으로 처리된 엘람인들의 옷, Barnett, R. D<sup>29</sup>, Pl. 122



<그림15> 비수툰에 묘사된 다리우스 왕의 상세도, H. Luschej, Taf. 33.



<그림16> 앗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Asshurbanipal)왕의 직사각형 턱수염, 니네베(Nineveh), H. Luschej, Taf. 40-2; R. W. Ferrier, 그림 11.

내주려는 듯한 포즈이고 다른 손에는 포로의 목을 묶은 밧줄을 잡고 서 있다. 밧줄에는 두 포로가 목이 밧줄에 묶여 연결되어 있고 두 손도 뒤로 묶여 있는데 나체이다. 왕과 여신 밑으로는 6명의 포로가 역시 손이 뒤로 묶인 채 나체로 위에 묘사된 포로들 보다는 작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서 포로는 9명으로 비수툰에 묘사된 반란군의 왕들과 숫자가 같다. 또한 왕이 형상들의 오른쪽에 묘사된 것과 중요한 인물을 크게 묘사한 점들이 비수툰 부조와 유사하다. 안누바니니(Annubanini) 왕의 크기는 실제 사람의 크기<sup>30)</sup>로만 설명되어 있고 그 외의 형상들의 크기 또한 비수툰 부조에서처럼 정확한 치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왕이 통치권의 상징인 링을 신으로부터 수여받는 일반적인 의식은 고대 수메르인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전통으로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 왕은 이 모티브를 모방하여 자기가 아후라 마즈다 신(神)으로부터 통치권의 상징인 링을 수여받는 모습을 묘사하여 자기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제작한 것이다. 이 테마는 후에 사산조 페르시아의 부조에도 자주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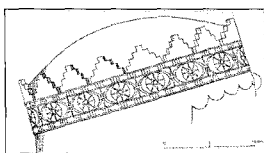
왕이 땅에 있는 포로를 밟고 서 있는 제스처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 시대나 우르 III 시대 작품에서 왕의 주권을 상징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었는데 이는 신 앗시리아(neo-Assyria) 시대에서도 행해졌다고 이 시대 텍스트에도 전하고 있다.<sup>31)</sup>

## V. 비수툰 부조에 묘사된 형상들의 복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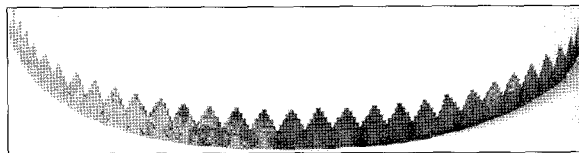
### 1. 다리우스(Darius)왕과 두 신하의 복식

#### 1) 다리우스(Darius)왕의 복식

다리우스왕은 옆에 주름이 있는 페르시아안드레스를 입고 끈이 없는 신을<sup>32)</sup> 신고 있으며 왼손엔 작은 활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 신을 향해 얼굴 높이만큼 치켜들고 서 있다. 왼발로는 땅에 누워 있는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마기아인(Magian) 가우마타(Gaumata)를 밟고 있다<그림13>. 페르시아안드레스는 원래 엘람인들의 옷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초기부터



<그림17> 다리우스 왕의 왕관, 상세도, W. Henkelman, 그림1.



<그림18> 아케메네스 왕조 소첨탑 모양의 머리띠 왕관, Das Perserreich, p.94.

차용하여 입었던 옷이었는데 다리우스 왕 때 이를 페르시아 드레스로 명명하여 페르시아의 국민복으로 자리잡은 옷이었다.<sup>33)</sup> 다리우스 왕이 입은 페르시아 드레스는 정쟁이까지 오고 허리에서 허리띠로 묶여지고 허리띠 끝에는 작은 술이 두 개 달려있다. 소매 끝에서부터 시작되어 옷 끝으로 길게 묘사된 세 개의 세로 주름은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드레스에서 보여지는 특징적 요소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페르시아드레스 끝단의 앞은 짧고 뒤는 길게 묘사되어있는 사선 처리이다. 이 사선 처리는 비수톤 부조에서 왕의 두 신하나 엘람인, 페르시아인들이 착용한 페르시아드레스에서도 관찰되는 공통적요소로 이는 파사르가대 키루스왕의 페르시아드레스<그림11 참조>나 그 후 페르세폴리스 조공도등에 묘사된 페르시아드레스에서 앞, 뒤가 일직선으로 처리된 묘사방법과는 다른 표현방법이다. 이 사선 처리 표현 방식에 대해 칼마이어(P. Calmeyer)는 앗시리아의 니스베(Ninive)산헤립(Sanherib)왕 궁전 부조에 묘사된 엘람인들의 옷이 항상 앞이 뒤보다 길게 묘사되어 있는 모양<그림14>을 모방하여 표현한 것<sup>34)</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엘람인들을 주로 묘사한 기원전 7세기 앗시리아의 산헤립(Sanherib)왕 시대 부조에 묘사된 앗시리아의 군인들 옷도 끝이 사선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 이 표현 방법이 그 당시 부조의 유행적 표현방법인지 아니면 실제로 엘람인들의 옷을 묘사한 것인지는 더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오른손을 치켜든 다리우스 왕의 제스처의 의미는 다리우스 머리 위와 부조 오른쪽에 새겨져 있는 엘람어 비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리우스는 자기 가문과 신분을 설명하며 자기가 키루스(Kyros) 왕의 직접적인 자손은 아니지만 아케메네스 왕가의 한 자손으로서 가우마타(Gaumata)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아후라 마즈다 신에게 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제스처로 설명되고 있다.<sup>35)</sup>

다리우스 왕의 머리는 윗부분에서 귀 밑까지는 거의 직선인 듯한 곱슬머리로 가지런히 잘 빗겨져있는 상태이고 귀 밑에서부터 달팽이 모

양의 곱슬머리로 변화되어 어깨 윗 부분까지를 내려 덮고 있다. 이 달팽이 모양의 곱슬머리형태의 턱수염이 귀 앞에서부터 시작되어 코 밑까지 얼굴 아랫 부분을 덮고 있으며 턱수염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늘어 뜨려져 있는데 구불구불한 10 다발의 곱슬 수염이 끝에는 달팽이 모양의 둥근 형태로 끝나지고 있다. 이런 모양이 3단계로 되어 있고 맨 끝은 달팽이 모양이 이중으로 묘사되어 졌다<그림15>. 직사각형 모양의 턱수염은 기원전 9세기 앗시리아의 왕이나 귀족들에게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는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곱슬 수염위에 추가적으로 착용했던 것인데<sup>36)</sup> 이 수염의 형태가 아케메네스 왕조 다리우스 왕의 형상에서 거의 같은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그림16>.

다리우스 왕은 머리에는 소침탑 모양의 장식<sup>37)</sup>이 나란히 붙어 있는 머리띠 모양의 왕관을 착용하고 있다<그림17,18>. 이 장식은 원래 고대 오리엔트에서는 나라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나 여기 비수톤 부조에서 이 장식은 지배자의 도상 즉 다리우스왕의 왕관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sup>38)</sup> 이는 다리우스 왕이 왕의 권위를 신(神)의 지위까지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이 소침탑 모양의 장식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왕관의 옆면에는 앗시리아(Assyria)의 장식 모티브인 장미꽃 문양<sup>39)</sup>이 새겨져 있어<sup>40)</sup> 전체적으로는 앗시리아의 형상을 그대로 모방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의도적 해석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 2) 다리우스왕의 두 신하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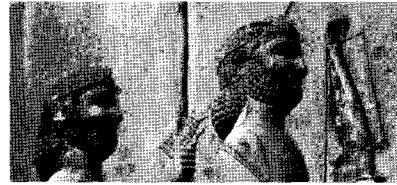
다리우스 왕 뒤에서 있는 두 신하는 다리우스 왕이 왕권을 잡을 때 다리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도와준 6명의 신하 가운데 두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sup>41)</sup> 두 신하는 다리우스 왕이 착용한 것과 같은 페르시아 드레스를 입고 있다. 옷의 끝단은 다리우스의 옷에서 보다 선명한 S 자형의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림19>.

머리와 턱수염 형태는 다리우스 왕의 형태와 비슷하나 다리우스 왕처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각형의 긴 턱수염은 없다. 머리에는 약 6cm<sup>42)</sup> 높이의 머리띠 관<sup>43)</sup>을 쓰고 있는데 다리





<그림19> 다리우스 왕과 두 신하, 연구자 촬영.



<그림20> 두 신하가 착용한 머리띠 관, H. v. Gall (1992), Taf. 71-1.

우스 왕의 왕관처럼 장미꽃 무늬로 장식되어 있으나 왕관 위에 붙어있는 소 침탑모양의 장식은 보이지 않아<그림20> 이 장식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장식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장식은 비수툰보다 나중에 제작된 부조에서는 자주 등장하여 아케메네스 왕조 초기 이후에는 보다 보편화되어 사용된 장식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예는 페르세폴리스 궁 부조에서 페르시아 귀족의 원통형 머리쓰개 끝부분과 페르세폴리스 궁 계단의 장식에서 관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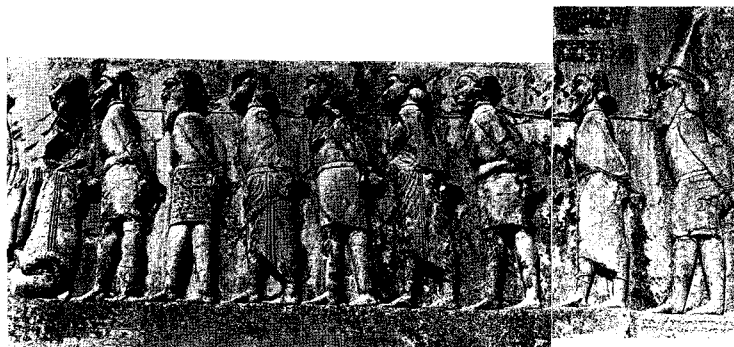
다리우스 왕 바로 뒤에 서 있는 신하는 활을 들고 그 다음 신하는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을 든 신하는 자기보다 훨씬 긴 창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다. 창끝은 약간 넓고 뾰족하며 창 밑에는 큰 둥근 구슬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고 중간에는 장식 끈이 붙어 있다. 이런 창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의 호위병이나 군인들을 묘사한 부조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형태로 이 창을 든 군

인이나 호위병들을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는 멜로포로이(Melophoroi) 라고 이름하였으며 두 번째 신하는 여기에 속하는 왕의 호위병이었다.<sup>44)</sup>

## 2. 가우마타(Gumata)와 9명의 반란자들의 복식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우마타와 9명의 반란자들의 이름이 종족이름과 함께 비문에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들은 1) 가우마타, 2) 엘람의 왕 - 아씨나(Assina), 3) 바빌론의 왕 - 니딘투 - 벨(Nidintu-Bel) 4) 메디아 왕 - 프라바르샤쉬(Fravartish) 5) 엘람왕국의 페르시아인 - 마르티야(Martiya) 6) 사가르티아(Sagartia)인 - 키산타크마(Chissantakhma) 7) 페르시아인 - 바흐즈다타(Vahyazdata) 8) 바빌론의 왕 - 아라카(Arakhka) 9) 마르기아나(Margiana)인 - 프라다(Frada) 10) 스키타이(Skythai)왕 - 스킨카(Skunkha)이다<sup>45)</sup><그림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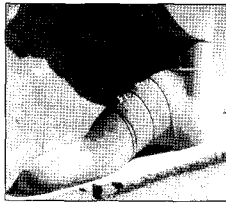
여기에 묘사된 포로들은 각 종족의 왕들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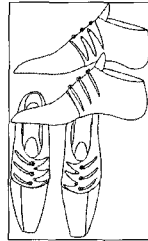
<그림21> 9명의 반란군의 왕들, H. Luschet, Taf. 32.



<그림22> 가우마타의 머리와  
턱수염의 상세도,  
H. Lushey, Taf. 37-3



<그림23> 끈이 3개인 페르시아의  
신발. W. Hinz, 그림 26,  
A. Salonen, 1969, 그림34



<그림23-1> 상세도,  
S. Bittner, 그림9-3



<그림24> 끈이 6개인 엘람의 장화,  
연구자 촬영

만 이 부조에서는 흔히 왕들에서 보여지는 화려함은 생략되어 있다. 당시 부조 작품에 흔히 묘사되는 왕의 곱슬 머리와 수염대신에 밋밋한 머리형태와 수염이 묘사되어 있고 신분을 나타내는 귀걸이나 팔찌등의 보석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것은 포로들을 비하시켜 묘사한 의도로 보여진다. 반란자들은 각각 자기 고유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어 이는 당시 각 종족의 복식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나 비수톤 이후의 부조 작품에 묘사된 종족들의 복식과 일치되지 않는 것도 있어 종족의 정체를 검증하는데 학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각 종족들의 복식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원피스형 유형인 페르시아인 드레스와 유목민 복식인 바지 저고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가우마타(Gaumata)의 복식

가우마타(Gaumata)는 땅위에 누워 다리우스 왕에게 자비를 구하는 듯한 제스처로 두 손을 치켜들고 있고, 손바닥은 다리우스 왕을 향해 펴고 있다. 한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위로 올리고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있는데 발의 대부분은

다리우스 왕의 발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고 앞꿈치만 조금 묘사되어 있다. 다른 한 발은 위로 치켜들고 있는데 이 역시 다리우스 왕 뒤로 묘사되어 있다. 가우마타는 다리우스 왕이나 두신하처럼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페르시아인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으나 어깨 밑에서 배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옷 선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13참조>. 이는 페르시아인 드레스가 어깨와 배를 노출시키며 흘러내려져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포로가 상체를 노출시키고 있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안누바니니 부조의 나체 형상들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체로 표현된 형상이 아케메네스 왕조 작품에서는 나체로 묘사하는 것을 꺼려해 부분 노출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46)</sup> 가우마타 머리는 앞 이마를 덮는 둥근머리 형태로 목 뒤까지 내려오고 턱 수염 역시 전체가 둥근형태로 곱슬이 아니며 약간 길다<그림22>. 이런 형태의 수염은 기원전 7세기 앗시리아의 부조에서 관찰되는 수염 형태로 비수톤에서 그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가우마타가 신고 있는 신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으로 발등위에서 세 번 묶여져 있다. 왕의



<그림25> 엘람의 왕  
마르티야(Martiya)의 머리모양,  
H. Lushey, Taf. 38-1



<그림26> 페르세폴리스 박트리아인의 복장,  
G. Walsler, Taf. 22.



<그림27> 마르기아나(Margiana)인  
프라다(Frada)의 머리와 턱수염  
모양, H. Lushey, Taf. 38-1

두 신하도 같은 형태의 신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신발은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 조공도의 페르시아 군인들에서도 관찰되는 전형적인 페르시아 신<그림23><sup>47)</sup>으로 발등에서 세 번, 발목위에서 세 번 묶어지는 엘람의 장화<그림24>와는 구별되는 신이다.

## 2) 9명의 반란자들의 복식

### ① 페르시아인 드레스를 착용한 반란자들

가우마타이외에 페르시아인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는 종족들은 두 번째 엘람인 아씨나(Assina), 다섯 번째 역시 엘람인(혹은 페르시아인) 그리고 일곱 번째 페르시아인 들이다. 이 옷의 끝단도 두 신하가 착용했던 페르시아인 드레스처럼 S 자형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씨나의 머리 부분은 파괴되어 그 형태를 잘 알아볼 수 없지만 다섯 번째 엘람의 왕 마르티야(Martiya)의 머리는 가우마타의 머리 형상과 비슷하나 목 뒤에 둥근 머리다발이 있어 뒷목 부분을 덮고 있는 것이 약간 다르다<그림25>. 이 머리 형태는 일곱 번째 페르시아인 바하즈다타(Vahyazdata)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앞이마를 덮고 있는 둥근 머리 형태 또한 선명하게 관찰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시대에는 엘람인과 페르시아인의 머리형태가 비슷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페르시아인 드레스와 거의 같은 형태이긴 하나 세로 주름이 없는 밋밋한 형태를 착용하고 있는 종족은 아홉 번째 마르기아나(Margiana)인 프라다(Frada)이다. 마르기아나(Margiana)는 박트리아

(Bactria)의 한 지역으로<sup>48)</sup>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에 위치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한 영역이었던 마루구시 도(道)(道の 수도는 Merv)의 그리스 어 이름이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른 부조에서 보통 박트리아 사람들은 바지 저고리의 유목민족 복식<sup>49)</sup><그림26>을 착용하고 등장하는데 이 비수툰 부조에서 마르기아나 인은 페르시아인의 페르시아인 드레스와 페르시아 왕의 신발을 착용하고 있고 또 머리 형태도 페르시아인의 머리형태와 비슷하다<그림27>. 이는 아마도 바지 저고리를 입는 마르기아나(Margiana) 지역의 주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배했던 페르시아인 사트라피(Satrapy: 도지사)를 묘사한 것으로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파견했던 페르시아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왜 마르기아나인의 옷에는 주름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지는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② 긴 튜닉형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한 반란자들

바지와 무릎까지 오는 긴 튜닉형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는 종족들은 네 번째 메디아 왕 프라바르샤쉬(Fravartish), 여섯 번째 사가르티아(Sagartia)인 키산타크마(Chissantakhma) 그리고 열 번째 스키타이 왕 스쿰카(Skunkha)등이다. 네 번째 메디아 왕 프라바르샤쉬(Fravartish)의 옷에 글씨가 새겨져있는 것이 눈에 떠는데 이는 부조 밑에 고대 페르시아어 버전을 새겨 넣을 때 공간이 모자라 이 곳에 보충하였다고 한다.<sup>50)</sup> 이 왕은 다른 포로들에 비해 긴 턱수염을 하고 있다<그림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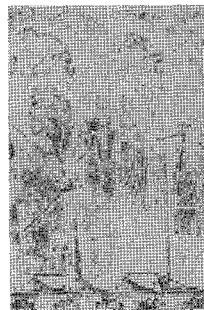
기원전 519년 다리우스 왕이 카스피해 동쪽에 있는 스키타이인을 정복하고 비수툰 부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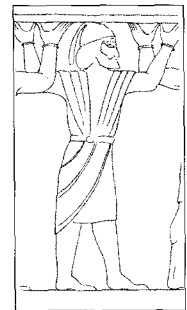
<그림28> 메디아 왕의 머리와 수염 모양, H. Lushey, Taf. 37-6.



<그림29> 스키타이 왕 스쿰카(Skunkha)의 머리와 수염 모양, H. Lushey, Taf. 8-6.



<그림30>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 조공도의 바빌론인<sup>51)</sup>, 연구자 촬영.



<그림31> 나그셰 로스탐 다리우스 왕 무덤 부조에 묘사된 바빌론인, G. Walser, Taf. 1-16

열 번째 포로로 스키타이 왕 스쿰카(Skunkha)를 첨가하였는데 크기는 1.80m이고 긴 턱수염을 하고 있다. 이 스쿰카는 다리우스 왕보다 크게 묘사되어 졌는데 이는 형상의 크기 묘사에서 왕을 가장 크게 그린다는 그 이전의 법칙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그림29>. 세부묘사에서도 머리와 수염의 형태묘사, 또 뒤로 젖힌 팔의 모양과 손을 묶은 밧줄의 묘사 등이 이전의 묘사 기법과는 약간씩 달라 이 형상이 같은 시기에 묘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52)</sup>

앞에서 서술한 종족외에 긴 튜닉형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종족으로는 바빌론의 왕으로 설명되고 있는 세 번째 니딘투-벨(Nidintu-Bel)와 여덟 번째 아라카(Arakh)이다. 그런데 바빌론의 왕의 이 복장은 비수툰 이후의 부조 작품인 페르세폴리스 조공도<그림30><sup>53)</sup>나 나그네 로스탐의 다리우스 왕 무덤 부조<sup>54)</sup><그림31>에 묘사된 바빌론인들의 복장인 긴 원피스 형의 복장과는 다른 형태이다. 바빌론인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었던 종족으로 이들은 유목민이 아닌 평원지대에 사는 농경민족이었다. 그렇기에 비수툰 부조에서 바빌론 왕이 유목민의 상징인 바지 저고리 유형의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네 번째 메디아인과 여섯 번째 사가르티아(Sagartia)인들에서 보여지는 바지에 신발이 붙어 있는 특별한 형태의 복장이다. 이는 유목민들이 즐겨 입었던 양말(신발) 달린 바지형태<sup>56)</sup>로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 조공도에서도 메디아인과 사가르티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복장이다. 또한 이 조공도에서는 이 형태의 복장을 자기 고장의 특산물인 조공물로도 바치고 있어 이는 이 종족들의

전형적인 복장이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그림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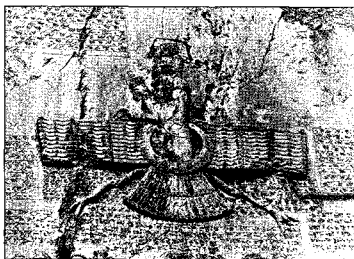


<그림32>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 조공도에서 조공물로 바치는 양말(신발) 달린 바지, G. Walser, Taf. 32.

### 3.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의 복식

부조 중앙에 반란자들의 머리위에 묘사되어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신(神)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는 페르시아인 드레스를 입고 날개 달린 태양 원반(a winged sun-disk)<sup>57)</sup> 안에서 서 있다. 아후라 마즈다 신의 크기는 1.27m 로 측정되었다.<sup>58)</sup> 왼손에는 통치권의 상징물인 고리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다리우스 왕을 향해 쳐들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다리우스 왕도 아후라 마즈다를 향해 오른손을 쳐들고 있는 것을 살펴본 왔는데 이 두 제스처는 다리우스 왕이 아후라 마즈다 신에게 자기 왕권에 대한 합법성을 허락 받고 싶은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묘사한 것으로<sup>59)</sup>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그림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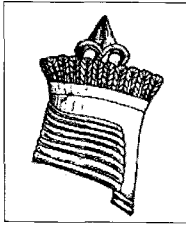
머리에는 일반적으로 신의 관으로 알려진 실린더 모양의 관인 폴로스(Polos)를 쓰고 있고, 긴 사각형 모양의 앗시리아형 턱수염을 하고 있으며 어깨까지 내려오는 뒷머리를 하고 있다. 실린더 관 앞에는 세 개의 뿔 모양 형태의 장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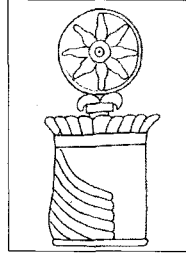
<그림33> 아후라 마즈다, 7000 Jahre persische Kunst<sup>55)</sup>,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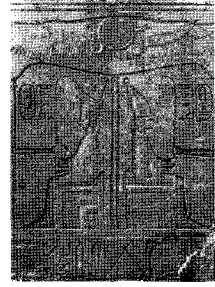
<그림33-1> 아후라 마즈다, 상세도, H. Luschey, Abb.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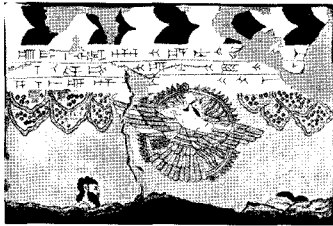
<그림34> 앗시리아 산헤립(Sanherib)시대  
뿔 장식이 있는 실린더 모양의 관.  
B. Hrouda, Taf.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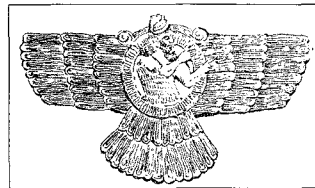
<그림35> 아다드 이쉬타르(Adad-Ishtar)  
신의 폴로스, B. Hrouda, Taf. 4-19.



<그림36> 이집트의 날개 달린 태양 링.  
K. Lange- M. Hirmer<sup>61)</sup>, Taf. 106.



<그림37> 앗시리아의 신 아수르(Assur)의 형상,  
기원전 9세기, A. Parrot<sup>62)</sup>, Abb. 282.



<그림38> 앗시리아의 신 아수르(Assur)의 형상,  
E. Herzfeld, Fig. 360.

앞 이마에서 귀까지 아플리케이션처럼 붙어 있는데 앞 이마에서는 뿔 모양이 관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 관 위에는 궁형을 이루며 뻗어나간 장식품이 붙어있는데 이는 관위에 붙인 새털 장식<sup>60)</sup>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은 앗시리아 부조에서 왕과 신이 착용했던 관과 아주 비슷하다. 앗시리아에서 산헤립(Sanherib)시대나 아수르바니팔(Assurbanipal)시대에서는 뿔 장식이 8개까지 표현되기도 했었다<sup>63)</sup><그림34>. 폴로스는 일반적으로 신의 형상물에 묘사되는 관으로 앗시리아의 신 아다드 이쉬타르(Adad-Ishtar) 신의 형상에도 묘사되어졌는데 여기에는 관 위에 8방으로 비추는 별이 붙어있다<sup>64)</sup><그림35>. 아후라 마즈다 폴로스 위에도 8방으로 빛을 비추는 별이 원반 안에 묘사되어 있어 두 폴로스의 형태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원래 뿔 모양이 묘사되어 있는 신의 폴로스는 오리엔트에서 전해 내려오는 형태로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앗시리아 또 바빌론에서도 즐겨 사용했었던 형태였다.<sup>65)</sup> 이로써 비수톤 부조에 묘사된 아후라 마즈다 신의 폴로스는 오래된 오리엔트의 전통을 모방하여 묘사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비수톤에 묘사된 페르시아의 신 아후라 마즈다의 이런 형상은 이집트 예술에서 표현된 날개 달린 태양 링<그림36>의 응용이다. 이집트의 날개 달린 태양 링이 앗시리아로 넘어와 앗시리아 예술에서는 기원전 9세기 경에 태양 링 안에서 앗시리아의 신 아수르(Assur)의 형상이 나오는 모습으로 응용되어졌다<그림37,38>. 이 앗시리아의 아수르 신의 원형이 비수톤의 아후라 마즈다 형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sup>66)</sup> 비수톤에서는 신의 형상이 훨씬 크게 묘사되어졌다. 또한 신과 왕이 앗시리아에서는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반면 비수톤에서는 신과 왕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는 통치권의 상징인 링을 건네주는 신의 역할이 앗시리아 부조에서는 매번 강조 될 필요가 없는 반면 비수톤에서는 다리우스가 왕권을 합법적으로 아후라 마즈다 신(神)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서로 마주보며 교통하는 듯한 형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67)</sup>

<표1> 옷의 형태에 의한 분류

옷의 형태	형상들
페르시아드레스를 착용한 형상들	아후라마즈다, 다리우스 왕, 왕의 두 신하, 1) 가우마타, 2) 엘람의 왕, 5) 엘람왕국의 페르시아인, 7) 페르시아인, 9) 마르기아나인
튜닉형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한 형상들	3) 바빌론의 왕, 4) 메디아 왕, 6) 사가르티아인, 8) 바빌론의 왕, 10) 스키타이 왕

## VI. 복식형태에 의한 형상들의 분류

여기에서는 비수톤 부조에 묘사된 형상들 즉, 아케메네스 왕조를 형성했던 서로 다른 종족의 구성원들을 복식형태에 따라 분석하여 각 종족들의 복식의 원형을 살펴보고 또한 복식으로 인한 서로의 공통점과 연결성, 또 상이점을 정리하여 각 종족의 복식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 1. 옷의 형태에 의한 형상들의 분류

페르시아드레스를 착용한 형상들은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중심세력을 형성했던 엘람왕과 페르시아 인이었으며 페르시아인 중에서는 신(神), 왕, 왕의 신하, 또 성직자 등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페르시아가 엘람의 옷을 차용하여 페르시아 드레스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역사가들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옷이 페르시아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 주로 착용

되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튜닉형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한 형상들은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페르시아인과 더불어 역시 중심세력을 형성했던 메디아인 왕과 페르시아와 이웃하고 있는 사가르티아인 또 다리우스 왕에게 점령당한 스키타이왕으로 이들 모두 유목민족의 종족임을 그 복식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농경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바빌론의 왕을 바지 저고리의 유목민족형 복식으로 묘사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다.

### 2. 머리와 수염의 형태에 의한 형상들의 분류

둥근 머리와 둥근 뒷머리 다발을 한 형상들은 모두 페르시아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고, 둥근 머리만 있고 둥근 뒷머리 다발이 없는 형상들은 모두 튜닉형 긴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고 있어 뒷머리 다발의 유무에 따라 복식이 유목민족형

<표2> 머리형태에 의한 분류

머리형태	종족들
둥근 머리와 둥근 뒷머리 다발	2) 엘람의 왕, 5) 엘람왕국의 페르시아인, 7) 페르시아인, 9) 마르기아나인
둥근 머리만 있고 둥근 뒷머리 다발이 없는 경우	3) 바빌론의 왕, 4) 메디아 왕, 6) 사가르티아인, 8) 바빌론의 왕

<표3> 수염의 형태에 의한 분류

수염형태	종족들
짧은 턱수염	6) 사가르티아인, 8) 바빌론의 왕
중간 턱수염	2) 엘람왕, 9) 마르기아나인
긴 턱수염	4) 메디아왕, 10) 스키타이왕

〈표4〉 신발 형태에 의한 분류

신발형태		형상들
바지에 달린 신발		4) 메디아인, 6) 사가르티아인, 10) 스키타이왕
발목까지 오는 신발	발목까지 오는 신발로 발등위에 끈이 없는 형태	다리우스왕
	발목까지 오는 신발로 발등위로 끈이 3개 달려 있는 형태	왕의 두 신하, 7) 페르시아인, 5)엘람왕국의 페르시아인
반장화		9) 마르기아나인

과 농경민족형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확실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마도 활동성에 관계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짧은 턱수염과 긴 턱수염을 한 종족들은 긴 튜닉형 저고리와 바지인 유목민족형 복장을 착용하고 있으며, 중간 턱수염을 한 종족들은 모두 페르시아인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

### 3. 신발 형태에 의한 형상들의 분류

바지에 신발이 달린 독특한 형태의 신발을 착용한 종족들은 앞에서 유목민족의 복식형태인 튜닉형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한 종족이었고 페르시아인 드레스를 착용한 페르시아인들은 모두 발목까지 오는 신발을 착용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신분에 따라 두 가지 형태 즉, 발목까지 오는 신발로 발등위에 끈이 없는 형태와 발목까지 오는 신발로 발등위로 끈이 3개 달려 있는 형태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다리우스 왕이 착용하고 있어 신분이 높은 층의 신발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왕의 두 신하와 페르시아인이 착용하고 있어 이 형태의 신발은 페르시아인의 보편적인 신발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VII. 결론

이 연구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비수툰 부조에 묘사된 복식에 대한 연구로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비수툰 부조는 다리우스 왕 초기 작품으로 주제와 형식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을 모방하여 표현하였는데 이는 A. 변형없이 그대로 모방

하여 묘사한 주제들과, B.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이 약간 변화되어 표현된 것등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A. 변형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묘사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1) 승리자의 형상들을 오른쪽 즉, 관찰자의 왼쪽에 묘사하는 개념, 2) 신이 왕에게 통치권의 상징인 링을 건네는 모습, 3) 9명의 반란자들을 묘사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마술의 숫자로 전해오는 아홉을 그대로 사용한 것등이 있었으며, 또한 4) 턱수염과 머리 스타일은 그 종족에 맞는 사실적인 표현이 아닌 전형적인 앗시리아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묘사하고 있었다. 이런 형태는 비수툰 부조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페르세폴리스나, 나그셰-로스탐의 부조에 각 종족들의 수염과 머리 스타일이 그 종족이 착용한 모습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과는 상당히 다른 표현이었다.

또한 B.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이 약간 변화되어 표현된 것도 있었는데 1) 메소포타미아에서 나라의 수호신을 상징했던 소침탑 모양의 장식이 비수툰에서는 다리우스왕의 왕관에 표현되어 있었고, 2)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체로 묘사된 형상들이 페르시아 비수툰 부조에서는 노출만 심하게 묘사되어 있어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이 페르시아식으로 변형되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분석되었다.

복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10명의 반란군들이 각각 자기종족 고유의 복장들을 착용하고 있고 비문에는 종족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를 형성했던 여러 종족들의 복식형태를 알아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이 착용한 복식은 유형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되어 원피스형 페르시아드레스를 입은 종족들과 유

목민족의 복식인 긴 튜닉형의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종족 등이었다. 다리우스 왕과 두 신하 그리고 엘람인들과 페르시아인이 페르시아드레스를 착용하고 있고 유목민족의 복식인 바지 저고리를 착용한 종족들은 메디아인, 사가르티아인, 바빌론인 등이었는데 바빌론인은 비수툰 이후에 제작된 페르세폴리스 궁전의 조공도와 나그셰-로스탐의 다리우스왕의 무덤에서는 평야지대의 옷인 긴 원피스형의 옷을 착용하고 있어 그 당시 농경민족으로 알고 있었던 바빌론인의 성격과는 다른 것이었다.

비수툰 부조에 묘사된 각 종족들의 복식은 그 형태와 복식요소들의 묘사에 있어서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비수툰 보다 후기 부조에 묘사된 복식의 형태와 복식 요소들이 몇몇 요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찰된 몇몇 다른 요소들은 앗시리아의 부조를 모방해서 묘사한 양식적인 면으로 해석되며 이런 현상은 비수툰 부조가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내려는 중간 과도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점들로 생각된다.

비수툰 부조가 복식사 연구에서 갖는 의미는 기원전 6세기 여러 종족들의 형상과 복식이 한 곳에 묘사되어 있어 여러 종족들의 복식을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는 최초의 사적 자료라는 것이다. 여러 종족의 이름이 언급되고 아울러 그 형상이 묘사된 자료로 비수툰 부조보다 먼저 편년되는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본 연구자는 여기에서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여러 종족들을 복식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당시 복식의 타이폴러지를 완성하려 시도하였다. 이시기의 더 자세한 복식의 타이폴러지(Typologie)는 다리우스 왕이 세운 페르세폴리스의 아파다나 궁전 계단 조공도에서 완성되기에 이 연구를 그 선행 연구로서 내놓는다.

카스피해 연안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의 남쪽 안산 지방에서 꽃 피운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문화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만리 떨어진 알타이(Altai)지방 스키타이의 무덤인 파지릭(Pazyryk) 무덤에서도 그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스키타이인들이 그 당시 거대한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의 복식을 차용하여 입었던 것이다. 이는 복식 연구가 문명 교류사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명교류사에 대한 연구를 복식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복식 연구를 통한 문명교류사 연구에 접근하려면 각 종족의 복식유형별 타이폴러지(Typologie) 연구가 우선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가 진행된 것이고 이를 한국 복식유형의 원류를 찾는 후 연구에 응용하려 한다.

## 참 고 문 헌

- 1) Koch, Heidemarie (1992). *Es kuendet Dareios der Koenig...*; Mainz/Rhein: Verlag Philipp von Zabern, p.14.
- 2) Root, Margaret Cool (1979). *The King and Kingship in Achaemenid Art*. Leiden, p.184.
- 3) 국내의 참고문헌으로는 본 연구자의 몇 편의 선행 논문이 유일한 자료임. 장영수 (2003).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 아파다나(Apadana)계단 알현도에 묘사된 복식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1), pp.1-11.; 장영수 (2003). "페르시아 복식 중 캔디스(Kandys)와 페르시아드레스(Persiandress)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7(2), pp.15-25.; 장영수 (2005).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 머리쓰개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1), pp.41-54. 참조.
- 4) 파르사(Parsa)는 페르시아 사람과 페르시아인이 살던 곳을 지칭하던 고대 페르시아 이름이었다.(Koch, H. (2006). *Persepolis*, Mainz: Verlag Philipp von Zabern, p.3.)
- 5) 페르시아인보다 먼저 이 지역으로 이주했던 이란 종족.
- 6) Koch, H. (2006). *Op. cit.*, p.5.
- 7) 키루스 대왕(Kyrus II)은 아들이 둘 있었는데, 캄비세스와 그의 동생 브르다(Brdya)이다. 키루스는 브루다(Brdya)를 파르티아(Parthia) 지방의 행정관으로 임명하여 이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나 키루스 왕이 죽은 후 캄비세스는 자기 동생을 암살했다.
- 8) Schmoekkel, Reinhard (1982). *Die Hirten, die*



- die Welt veraenderten*. Hamburg: Verlag Rowohlt, pp.11-20.; Koch, Heidemarie (1992). Op. cit., pp.7-11.; Koch, Heidemarie (2006). Op. cit., pp.3-5.; E. M. Burns, R. Lerner, S. Meacham, 박상익 옮김 (1994). *서양 문명의 역사*. 소나무, pp.73-76.; Gombrich, E. H. 이내금 옮김 (1997). *세계사*. 자작나무, pp.96-98.; 오가와 히데오 감수, 고선윤 옮김 (2002). *고대문명*. 서울문화사, pp.66-67.
- 9) Root, Margaret Cool (1979). Op. cit., p.185.; Henkelman, Wouter (1995-1996). The Royal Achemenid Crown, in *AMI (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Band 28, Berlin, p.275.
- 10) Root, Margaret Cool (1979). Op. cit., p.222.
- 11) 지상에서 약 61.80m 높이에 새겨져 있는 고대 페르시아어 비문 위로 약 4.25m 높이에서 부조가 시작되므로 부조 자체는 지상 66m 높이에 위치한다. 고대 페르시아어 비문과 부조 사이에는 약 30cm 높이의 간격이 있어 부조와 비문을 구별하고 있다.
- 12) Lushey, Heinz (1968). "Studien zu dem Darius-Relief von Bisotun", in *AMI, N.F.(Neue Folge)* Band 1, Berlin, p.67.
- 13) Rollinger, Robert (2006). "Ein besonderes historisches Problem(Die Thronbesteigung des Dareios und die Frage seiner Legitimitaet)", in *Ausstellungskatalog, Pracht und Prunk der Grosskoenige-Das persischer Weltreich*, Historischen Museum der Pfalz Speyer, p.43.
- 14) Calmeyer, Peter (1987). "Art in Iran III. Achaemenian Art and Architecture", in *Encyclopaedia Iranica* Vol. II, London & New York, p.573.; Lushey, Heinz (1968). Op. cit., p.91.; Rollinger, Robert Ibid.
- 15) 1단계에 쓰여진 엘람어 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았는데, 다리우스 자신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통 혈통을 이었으므로 왕위에 정통성이 있음을 시종 강조하고 있다. "나는 히스타스페스(Hystaspes)의 아들, 아케메네스인(Achaemenide), 왕 중의 왕 다리우스 왕이다. 나는 현재 페르시아의 왕이다. 다리우스 왕이 선포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히스타스페스(Hystaspes)이고, 그의 아버지는 아르사메스(Arsames)이고, 그의 아버지는 아리아람네스(Ariarammes)이고, 그의 아버지는 타이스페스(Teispes)이고, 그의 아버지는 아케메네스(Achaemenes)이다. 다리우스왕이 선포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가문을 아케메네스 家로 부르노라. 자고로 우리는 귀족이었고, 왕족이었노라. 다리우스 왕이 선포하기를, 우리 가문의 여덟 왕이 왕위를 지냈으며, 나는 그 아홉 번째의 왕위를 차지하노라. 우리는 두 갈래로 왕위를 이으노라." 마지막 문장을 통해 그는 키로스(Kyros)의 직계혈통은 아니지만 그의 조카로서 다른 계통을 통해 아케메네스 家の 적통임을 나타내고 있다(Koch. H. (1992). Op. cit., pp.17-18.)
- 16) Rollinger, Robert (2006). Op. cit., pp.45-46.; Heidemarie Koch (1992). Op. cit., pp.18-20.
- 17) Gershevitch, Ilya (edited by). "The Median and Achaemenian Periods",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2*,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829.; Lushey, H., (1968). Op. cit., p.85.; Porada, Edith (1962). *Alt Iran*. London, pp.158.
- 18) Gershevitch, Ilya (edited by). Ibid.
- 19) Gershevitch, Ilya (edited by). Ibid.; Lushey, H., (1968). Op. cit., p.39.
- 20) G. Rodenwaldt (1922). "Der Belgrader Kameo", *Jdl* 37, p.17.; G. Rodenwaldt (1956), Rechts und Links, (Untersuchungen ueber Bewegung -srichtung, Sittenordnung und Hoehenordnung als Elemente der antiken Bildsprache), Tuebingen.
- 21) Lushey, H. (1968). Op. cit., p.84.
- 22) <http://www.iranchamber.com/index/art-index.php>
- 23) Root, Margaret Cool (1979). Op. cit., p.201.
- 24) Lushey, Heinz (1968). Op. cit., p.68.
- 25) Root, Margaret Cool (1979). Op. cit., p.210.

- 26) 헤르쯔펠트(Herzfeld E.)는 그의 저서 *Iranische Felsreliefs*에서 처음으로 비수툰과 안누바니니(Annubanini)부조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 하면서 안누바니니(Annubanini)부조에 묘사된 앗시리아와 바빌론의 전통이 비수툰 부조에 많이 표현되었다고 설명하였다(Luschey, H. (1968). Op. cit., p.65); Heidemarie Koch, H. (1992). Op. cit., p.13.
- 27) Ibid., p.196, 200.
- 28) Root, Margaret Cool (1979). Op. cit., p.197.
- 29) Barnett, B. D. *Assyrische Palastreliefs*, Czechoslovakia: Artia Prague, p.122.
- 30) E. Herzfeld, *Tor von Asien*, Abb. I, Taf. 2.
- 31) Root, Margaret Cool (1979). Op. cit., pp.197, 199-200.
- 32) Luschey, H. (1968). Op. cit. p.73.; Root, Margaret Cool (1979). Ibid., p.185.
- 33) 이 옷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영수(2003),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 아파다나(Apadana)계단 알현도에 묘사된 복식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1), pp.1-11; 장영수 (2003). “페르시아 복식 중 캔디스(Kandys)와 페르시아안드레스(Persiandress)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7(2), pp.15-25.참조.
- 34) Calmeyer, Peter (1988). Zur Genese Altiranischer Motive X. Die Elamisch-persische Tracht, in *AMI(Aech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Bd. 21, Berlin: Verlag von Dietrich Reimer, p.50.
- 35) Koch, Heidemarie (1992). Op. cit., pp.17-18.
- 36) Ferrier, R. W (1989). *The Arts of Persia*, Yale University, New Heaven & London, p.35.
- 37) Henkelman, Wouter (1995-1996). Op. cit, p.276.; Koch, H. (1992). Op. cit., p.223.
- 38) Historischen Museum der Pfalz Speyer (2006). *Das Persische Weltreich*, Stuttgart: Konrad Theiss Verlag GmbH, p.94.
- 39) Calmeyer, Peter (1976). “Zur Genese Altiranischer Motive IV. Persoenliche Krone und Diadem”, in *AMI*, NF Band 9, Berlin: Verlag von Dietrich Reimer, p.54.
- 40) Hinz, Walter (1969). *Alt iranische Funde und Forschungen*, Berlin: Walterde Gruyter &Co, p.76.
- 41) Koch, Heidemarie (2006). Op. cit., pp.4-5, 이 두 신하의 이름은 비문에 새겨있지 않아서 이름을 규명하는데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궁전을 발굴 조사함으로써 이란 고고학의 시조가 되었던 독일의 고고학자(E. Herzfeld)는 왕 바로 뒤에 활을 들고 서 있는 신하를 빈다파르나(Vindafamah)로 설명하였고(E. Herzfeld, *Iranische Felsreliefs*, p.53; Heidemarie Koch (1992). Op. cit., p.14.: 그 후에 이 비문을 직접 실측 조사한 역시 독일의 고고학자 루샤이(H. Luschey)는 왕 바로 뒤에 활을 들고 서 있는 신하를 인타페르네스(Intaphernes)로, 그 뒤에 창을 들고 서 있는 신하는 가우바루파(Gaubarva, 그리스어로 고브라스(Gobryas)로 설명하였다(Luschey, Heinz, (1968). Op. cit., p.68,70).
- 42) Hinz W. (1969). Op. cit., p.76.
- 43) 이 두 신하의 이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이들이 쓴 왕의 머리띠 관에 주목한 칼마이어(Calmeyer)는 이들을 히스타스페스(Hystaspes)와 아르사메스(Arsames)라고 설명하였다.(Calmeyer, P. (1987). Op. cit., p.573)
- 44) Luschey, H. (1968). Op. cit., p.69.
- 45) Ibid., p.69.
- 46) Ibid., p.74.
- 47) Salonen, A. (1969). *Die Fussbekleidung der alten Mesopotamier nach sumerisch-akkadischen Quellen*, Taf.(그림)34; Hinz, W. (1966). *Alt iranische Funde und Forschngen*, Helsingki, p.76.(그림)26; Bittner, Stefan (1985). *Tracht und Bewaffung des persischen Heeres zur Zeit der Aachaimeniden*, Muenchen: Verlag Klaus Friedrich, <그림 9-3>.
- 48) Ibid., p.79.
- 49) Walser, G. (1966).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Berlin: Verlag Gebr.

Mann, p.94

- 50) Koch, H. (1992). Op. cit., p.20.
- 51) Ibid., Taf. 12.
- 52) Luschey, H. (1968). Op. cit., p.80.
- 53) Walser, G., (1966). Op. cit., p.77.
- 54) Ibid.
- 55) Seipel, Wilfrid(Hrg.) (2001). *7000 Jahre persische Kunst*, Bonn: 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22.
- 56) Luschey, H. (1968). Op. cit., p.76.
- 57) Herzfeld, Ernst (1988). *Iran, in the ancient east*, New York, p. 254; Luschey, H. *ibid.*, p. 81.
- 58) Luschey, H. (1968). *ibid.*, p.68.
- 59) Gershevitch, Ilya (edited by), Op. cit., p.828.
- 60) Luschey, H. (1968). Op. cit., p.81
- 61) Lange, Kurt und Hirmer, Max, *Aegypten*, Muenchen: Hirmer Verlag, Taf. 106.
- 62) Parrot, Andre (1961). *Assur*, Muenchen: Verlag C. H. Beck, p.227; Herzfeld, E., (1988). Op. cit., Fig.360.
- 63) Hrouda, Barthel (1965). *Die Kulturgeschichte des Assyrischen Fachbildes*, Bonn, p.42.
- 64) Ibid.
- 65) Luschey, H. (1968). Op. cit., p.81.
- 66) Ibid., p. 82; Root, Margaret Cool (1979). Op. cit., p.212.
- 67) Root, Margaret Cool (1979). *Ibid.*, pp.211-212.